

대학생 취업지원프로그램 참가자의 일본취업과정과 국내취업과정의 성향 연구*

- 대전권 대학생을 중심으로 -

전 윤 선**

(e-mail : junys0424@naver.com)

< 목 차 >

- | | |
|-----------------------|------------------------|
| 1. 들어가기 | |
| 2. 연구방법 | 5. 대학생 취업지원프로그램 참가자 성향 |
| 3. 선행연구 | 5.1. 2013년 참가자 성향 |
| 4. 일본취업과정과 국내취업과정의 이해 | 5.2. 2015년 참가자 성향 |
| 4.1. 일본취업과정의 이해 | 6. 나가기 |
| 4.2. 국내취업과정의 이해 | |

キーワード : 고용(Employment), 정부(Government), 실업(Unemployment), 지원(Assist), 과정(Process)

1. 들어가기

대학 졸업자의 실업이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고, 청년 개인들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다. 한국고용정보원(2014)에 따르면 2013년 취업자는 전년과 대비하여 5만명 감소한 379만 3천명으로 추계한다고 한다. 이 중에서도 2013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고용률은 39.7%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한다¹⁾. 이 상황을 정부 · 학교 · 산업계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위기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 일환으로 각 대학에서는 産学협력을

* 이 논문은 2016년도 목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목원대학교 인력개발원, 취업상담 조교수, 일본학

1) 고용조사분석센터(2014) 「청년 취업실태 및 의식 기획조사」 한국고용정보원, p.1.

쟁점화하여 각 분야별 교육부 링크사업이 지원하는 산학협력중점교수²⁾등을 채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지원관’을 대학에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분기별로 취업캠프, 취업박람회 기획, 취업상담, 취업관련 특강 등이 가능한 인력의 자격을 심사하여 취업지원관 인력풀을 관리한다.

이처럼 대학의 발전과 학생의 취업역량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예산을 지원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비 지원사업의 정량평가에 취업률은 반드시 포함되며, 사업 중의 하나가 교육역량강화사업이다.

본고에서는 대학 내에서 운영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가자의 성향을 파악하여 일본에 취업하기 위한 일본취업과정과 국내에 취업하기 위한 다양한 취업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대학 내 취업지원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효율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학생들의 성향을 반영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은 학생들의 만족도는 항상 될 것이고, 조기 취업하는데 과급 효과가 발생되어 고용 안정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본고는 국내 대전권 대학생들의 표본수를 늘려 2013년 4월 832명, 2015년 11월 187명 총 10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표본조사 결과의 일반화를 높이고자 하였다. 대전에 소재한 대학이지만 지역적으로 우리나라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고, 전국에서 학생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대학생의 취업 성향을 파악하는데 객관적인 가치가 있다고 본다.

대학생들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가자의 취업에 관한 성향을 수치화하고, 도출된 성향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국내·외 취업과정의 선호도를 반영한다. 타 논문과 차별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대학 내에서 운영 가능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2) LINC(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사업비로 전체사업비 중 25%를 인건비 가능하므로 지원하고 있음.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은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자.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과(2012)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 교육과학기술부, p.1.

3. 선행 연구

일본취업과정³⁾을 2005년부터 교육현장에서 지도하면서, 글로벌 인재 양성과 대학생 취업률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2009년 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취업 과정을 포함한 국내·외 취업과정을 교육 담당자와 기획자 입장에서 연구하게 되었다. 일본에 취업하는 것도 포괄적인 의미로 해외취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선 해외취업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해외취업에 관련된 연구는 2006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기획예산처의 의뢰로 김용성의 4명의 연구진으로 연구된 「해외취업지원사업 심층평가」라는 보고서이다. 해외취업지원 사업의 문제점 제시와 현황분석으로 해외취업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방안 제시는 부족하였다. 본고는 대학생들의 성향을 반영한 해외취업과정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일본 취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일본IT취업에 관한 김필동(2007)의 논문으로 정보와 지식이 부가 가치의 원천이 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일본 정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한 IT전략의 추이에 관한 논문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IT인력 수요공급의 미스 매칭 실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협력 체제의 구축과정, 국제협력 체제가 가져오는 시대사적 의미에 관해서 논하였다.

정동고(2009)의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21세기 경제 성장엔진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식서비스 산업의 발전방향과 지식 서비스 수출확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대일본 IT기술 인력에 대한 설문조사의 사례분석을 통해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IT인력의 육성방안 제시와 조사연구를 통해 전략적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방향 제시, 지식 서비스 수출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일본IT취업 과정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취업 성향에 따른 국내 취업교육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0년부터는 해외취업사업관련 연구가 예전에 비해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선문대학교 권경득(2011)의 논문이다. 중국,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한국 청년의 해외취업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별 취업환경 및 유망 직종 등을 고려하여 해외취업

3) 본고에서 일본취업과정이라 지칭하는 것은 일본에 취업하기 위한 한국에서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말한다. 약칭하지 않고 풀어서 설명하면 일본 취업지원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고는 일본취업과정에 관한 대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모색하고자 한다.

박사학위 논문으로는 최병기(2010)의 「해외취업사업의 미래전략 방법론에 관한 연구」와 석사논문인 「청년실업 해소 대책으로서의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이다. 이 논문은 설문지의 내용을 통계적, 경영학적 기법으로 기술하여 각각의 항목에서 인용하였다. 글로벌 미래의 하나인 해외취업에 대해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에게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와 정보의 제공을 부처별로 평가하였다. 이것을 통계적, 경영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객관적으로 수치화하였다. 본고는 청년 실업 해소방안으로 대학생의 성향에 따른 국내취업과정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취업을 위하여 운영되는 국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취업률 향상을 위한 효율성 있는 취업 지원 담당 부서 및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로 이종구(2014)의 연구에서는 주로 운영되고 있는 직무분야와 국내 대학들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체계화 하여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지원 활동과 취업지도로 지향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관하여 우덕제(2013)는 대학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취업특강, 취업캠프 등이 보편적으로 운영된다고 하였다.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 배성숙(2013)은 취업캠프, 취업특강, 취업동아리가 대학에서 비중 있게 운영된다고 제시하였다.

김호원(2010)의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대학들이 운영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전국 각 대학들이 '경력관련 기본 이론 학습', '잡 -서치 및 정보제공/네트워킹', '구직스킬', '일과 관련된 경험', '취업관련 활동 지원'관련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운영한 것을 제시하였다.

강원준(2008)은 취업특강, 취업동아리, 취업캠프를 가장 비중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제시하였고,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취업동아리가 구직성공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요행(2010)은 국립대학교가 사립대학교에 비해 취업지원 부서의 보직 부서장이나 실무 인력의 담당업무 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고 하였다.

주영주·한상운(2015)은 대졸 청년층의 학교 지원 및 전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내재적 직업가치 및 외재적 직업가치가 첫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서 논하였다.

본고는 상기의 논문들과는 달리 대학생들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가자의 취업성향을 파악한 후 결과에 따른 일본 취업과정과 국내 취업과정을 전략적으로 기획하고자 한다. 성향을 반영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가자 확대에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한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로 대학생들의 취업역량 함양이 증대되어 실업해소 방안의 하나로 앞장서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일본취업과정과 국내취업과정의 이해

4.1. 일본취업과정의 이해

201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현황을 보면 취업률은 58.6%로 나타났다. 2012년 취업률 59.5%, 2013년 취업률 59.3%로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해외취업자는 2011년 721명, 2012년 1324명, 2013년 1637명, 2014년 1721명으로 연속적으로 증가추세이다⁴⁾.

세계의 다양한 악재와 경기 불황에도 해외취업자가 매년 상승하는 것은 해외취업을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2013년도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국립, 공립, 사립 공통 지표의 취업률에 해외취업률이 포함되며⁵⁾, 2014년도 처음으로 시행된 ‘2014년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평가 세부지표에도 포함된다. 지원되는 사업예산이 2014년 1,910억원⁶⁾이다. 대학은 다양한 취업 역량 강화에 도움 되는 해외 인턴십과정, 자격증 과정 등 취업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을 받지 못하면 간접적으로 취업률 하락에 영향을 초래한다. 거시적으로 학교의 질적인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학생 충원률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대학의 존폐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교육부 홍보담당관실(2015) 「2014년 대학정보공시 보도자료」 교육부, p.11.

5) 대학재정지원과(2013) 「2013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교육부, p.29.

6) 교육부(2014) 「2014년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 교육부, p.14.

<表1>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명	사업수행기관	인원	기간	참여대상	정부지원금
WEST	국립국제교육원	360명	18개월 이내	대학·전문대 재학생 및 1년 이내 졸업생	700~ 2,100만원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한국대학교육 협의회	150명	4~6 개월	대학 재학생 (4학기 이상 수료자)	220~450 만원
전문대 글로벌 현장학습	한국전문대학교육 협의회	550명	4~6 개월	전문대 재학생 (2학기 이상 수료자)	400~750 만원
교사대 졸업자 해외진출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 교육원	20명	10 개월	미입용 수학·과학 2급 정교사	2,000만원 내외
합계		1,080명			

출처 : 고용노동부(2015) 『2015 한권으로 통하는 청년고용정책』

2015년 상기 <表1>은 정부 각 부처에서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한-미 취업연수[WEST] 12개월’프로그램이다. 선발인원은 160명 내외로 어학연수(3개월)+인턴취업(6~8개월)+여행(1개월) 프로그램은 최대 12개월 과정이다⁷⁾. 이 프로그램은 어학은 교육하지만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현장실무 교육은 하지 않고 인턴으로 한시적 취업하는 형태이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현장훈련(OJT)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체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해외건설현장으로 보낼 경우 훈련비를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대상이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로 제한하지 않고 기업체에서 신규로 채용할 경우 최대 1년 동안 1,140만원 재정지원하고 있다⁸⁾.

본고에서는 다양한 국비를 지원하는 일본에 취업하는 교육과정 중 취업 실무 능력을 구비할 수 있고, 졸업예정자가 대학 재학 중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K-Move스쿨’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른

7) 국립국제교육원(2015) 「2015년도 한·미[WEST] 12개월 제1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공고」 p.1.

8) 청년고용기획과(2015) 『2015 한권으로 통하는 청년고용정책』 고용노동부. p.163.

재정지원 해외취업 프로그램과 차별화 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실무 능력이 구비되어 국내취업도 용이하다. 미취업자 중 대학졸업 후 취업을 준비 하는 기간이 최장 2년 정도 소요되는 학생도 있다. 이를 대학 재학시 직무 교육을 하면 취업 준비 기간이 짧아지므로 학생에게도 대학 취업률에도 도움 되는 일본취업과정이다.

<表2> 사업유형 및 목표인원

사업유형	'15. 목표인원	승인인원	모집인원
K-Move스쿨(장기)	500	350	150
K-Move스쿨(단기)	2,500	1,830	670
합 계	3,000	2,180	820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2015) 2015년도 K-Move스쿨 운영기관 모집 공고

‘K-Move스쿨’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해외취업 연수 사업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며 2013년 9월 전국에서 6개 과정이 개설되어 최초 시행되었다. 연수비용도 다른 해외취업관련 사업보다 많은 1인당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된다. 운영해온 해외취업사업을 보완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실례로 운영기관에서 자체 멘토단을 구성하여 연수생 · 멘토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서로 연락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이다. 또는 ‘K-Move 멘토단’을 구성하여 연수과정 수료 후에도 상담, 현지정보 제공 등 온·오프라인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⁹⁾. 2014년도 다양한 해외취업 사업을 2015년부터 <表2>처럼 ‘K-Move스쿨’로 단일화하였다. 연수과정의 기간에 따라서 ‘K-Move스쿨’ 장기와 ‘K-Move스쿨’ 단기로 분류 하였다. ‘K-Move스쿨’ 구성 최소인원은 5명 이상이다.

‘K-Move스쿨’ 장기과정은 취업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본어교육, 실무교육, 소양교육 등을 국내와 일본에서 6개월 이상에서 12개월 이하까지의 교육과정

9) 취업기획팀(2013) 「2013년 K-MOVE 스쿨 세부 추진계획」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국, p.9.

을 말한다. K-Move스쿨 단기과정은 기간이 3개월 이상에서 9개월 이하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表3> 교육기간 및 시간

유형		인원	연수기간	연수시간
K-MOVE 스쿨	장 기	500명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제한없음
	단 기	2,500명	3개월 이상 9개월 이하	1주 25시간 이상 1일 8시간 초과금지 주말(토·일)수업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2015) 2015년도 K-Move스쿨 운영기관 모집 공고

‘K-Move스쿨’ 장기과정과 ‘K-Move스쿨’ 단기과정은 일본어교육과 실무교육을 포함한 전체적인 교육기간도 다르지만, 교육시간도 <表3>처럼 다르다.

이와 같은 추세는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가 추구하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과 ‘K-Move스쿨’과정의 실무 직무교육과 부합된다.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이다¹⁰⁾.

상기와 같은 취업과정을 통해 해외취업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월드잡 사이트에 등록한 후 해외에서 취직을 하면 주소지가 대전시인 경우 해외취업자 항공료 및 체재비 일부지원 명목으로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1인당 300만원 이내로 지급하고 있다¹¹⁾. 한국산업인력공단도 2014년도에는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이란 사업으로 300만원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¹²⁾.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최대 5년간 7억 5000만원 지원되는¹³⁾ 해외취업반 맞춤형 교과과정인 청해진 대학은 2016년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선정된 8개 대학 중에서 일본 취업과정은 5개 대학이다.

10) http://www.ncs.go.kr/ncs/page.do?sk=P1A1_PG01_001(검색일: 2016.6.5)

11) 일자리추진기획단(2014) 「2014 청년인력 해외취업 및 연수자 지원계획」 대전시. p.2.

12) 한국산업인력공단(2014) 「2014도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지원사업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 p.2.

13)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03_0014127359&cID=10807&pID=10800(검색일: 2016.6.6.)

4.2. 국내취업과정의 이해

요즈음 사회정세가 'IMF시절보다 힘들다', '대학 졸업자의 일부는 등록금 대출로 신용불량자다' 등 실업으로 인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취업을 하기 위하여 학생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노동시장에 최대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취업과정이나 자격증 취득과정이 필요하다.

취업한 대졸자가 일자리가 없는 대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격 보유 비율이 높다고 한다¹⁴⁾. 이와 관련하여 국내취업을 위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자격증과정, 교육과정, 현장실습과정 등과 관련되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강소기업체험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장체험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진로탐색과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직업의식 고취로 진로설계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고자 기획된 것이다¹⁵⁾. 재학생 위주로 기업체 근무는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주 20시간 한도로 1개월 기준으로 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학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학교수업과 병행하기 어려우므로 주로 방학 때 운영하는 것이 용이하다.

둘째, 청년취업아카데미는 기업·사업주단체 주도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취업으로 연계하는 과정이다. 교육과정은 2개월~12개월 이내로 청년취업아카데미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셋째, 한국형 일-학습 병행제 사업은 기업이 취업희망자를 근로자로 채용, 일과 학습을 병행, 현장외 훈련과 현장훈련을 동시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제도로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근로자 1인당 훈련수당 지원은 월40만원, 기업내 훈련 담당자 수당 지원은 월66만원, 기업내 일-학습 병행제 행정업무담당자 수당 지원은 월25만원이다¹⁶⁾.

넷째,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과정이다. 졸업예정자로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은 가능하다. 지원·기능인력양성과정은 훈련비용의 100%~130%지급되고, 전문·기술인력양성과정은 성과연계 실비 지급이 되면서 훈련장려금 월 최대 316,000원 지급한다¹⁷⁾.

14) 천영민(2010) 「대졸자 취업과정 분석」 『이슈 분석 2』 한국고용정보원. p.26.

15) 취업지원과(2013) 「2014년 대학취업지원사업 설명회 자료」 고용노동부. p.17.

16) 대전지역본부 일-학습지원센터(2014) 「한국형 일-학습 병행제 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 p.3.

다섯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중소기업 인턴쉽을 통해 경력형성, 직업능력 배양 형성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인턴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6개월 동안 임금의 50%(최대 80만원한도)를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시 추가 6개월 지원(최대 390만원)한다.

여섯째, 스펙초월 멘토스쿨은 8개의 멘토스쿨 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청년인재은행 DB에 구직자를 등록하여 기업채용담당자와의 멘토링 기회를 제공한다. 멘티에게 교육기간중 지원금을 비수도권 거주자에게 월 30만원 지급한다.

5. 대학생 취업지원프로그램 참가자 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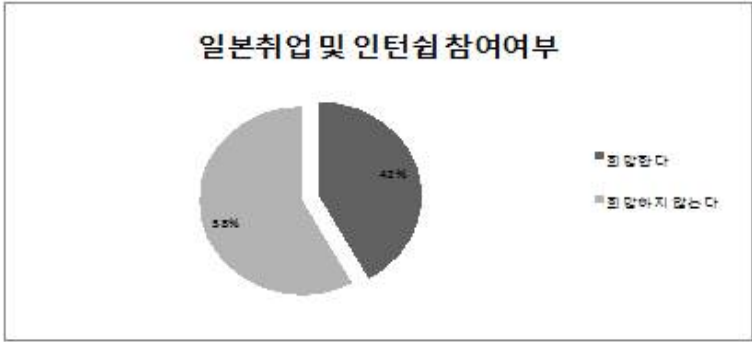
5.1. 2013년 참가자 성향

본 설문조사는 논자가 2013년 2년제 전문대학 취업지원관으로 취업현장에서 지도하던 중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5월 2년제 대학의 미취업자이며 잠정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졸업예정자가 대상이다. 해당 학과에 논자가 기획하고 운영한 ‘실전모의면접’이라는 특강형식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후에 졸업예정자들에게 실시하였다. 물류유통경영과 30명, 경찰경호과 55명, 재활과 18명, 주얼리디자인과 4명, 아동보육과 20명, 애완동물과 2명, 컴퓨터정보&스마트폰과 10명, 금융부동산행정과 5명, 광고홍보디자인과 18명, 의료기기과 9명, 의료정보과 16명, 실내건축디자인과 14명 총 12개학과로 수집된 최종 유효 표본 수는 201부이다. 12개학과의 수집된 최종 유효 표본 수는 총 201부이다.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의 비교분석이 아니고 일본취업과정을 포함한 해외취업과정에 대한 성향을 조사하여 일본 취업과정과 국내취업과정이 활성화되어 성공적인 취업으로 이끌기 위함이다.

다음 <그림1>은 설문지 항목중 ‘일본 취업 및 인턴쉽 과정이 개설되면 참여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체크되지 않은 것 46부, 체크된 155부 중에서 ‘희망한다’에 65부인 42% ‘희망하지 않는다’에 90부인 5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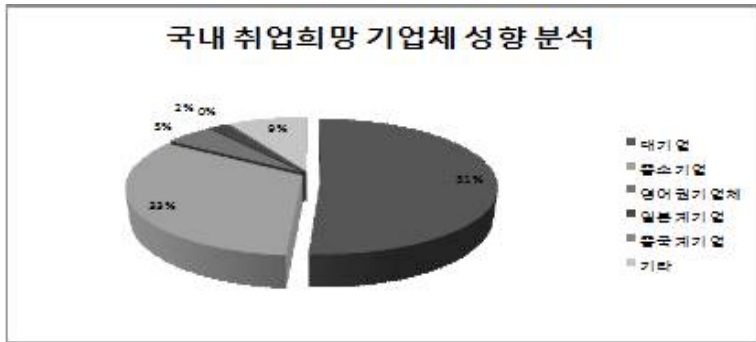
17) <http://www.work.go.kr/daejeon/ctrIntro/ctrWork/ctrWorkDetail.do?menuCd=40205&detCode=5>(검색일: 2014년3월8일)

<그림1> 2년제 졸업예정자 일본취업 및 인턴십 과정 희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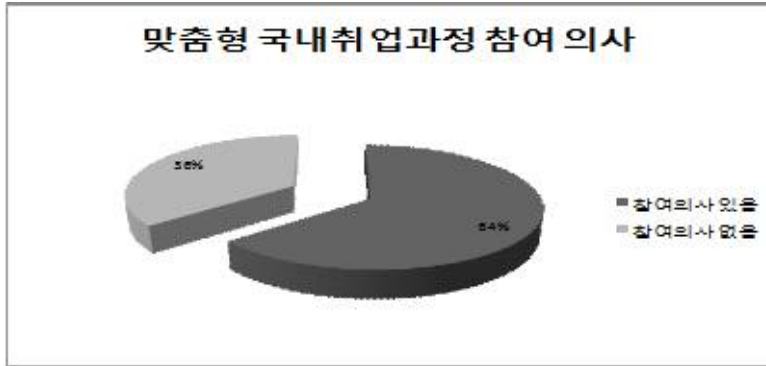
다음 <그림2>는 「국내 취업 희망 기업체 분야는?」이라는 질문에 전문대학이지만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유형은 대기업으로 '51%'가 가장 높다.

<그림2> 국내 취업 희망 기업체 성향



국내취업과정을 운영할 경우 참여여부 성향을 조사하였다. <그림3>은 「맞춤형 국내취업프로그램 운영시 참여의사는?」 라는 질문에 '참여하겠다'가 64%이다. 재학생의 취업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진로를 정하지 않은 학생들이 대다수이다. 어느 것 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막연함 속에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한 후 진로관련 방향을 제시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기획하면 참여률은 높을 것이고, 높은 만큼 취업률은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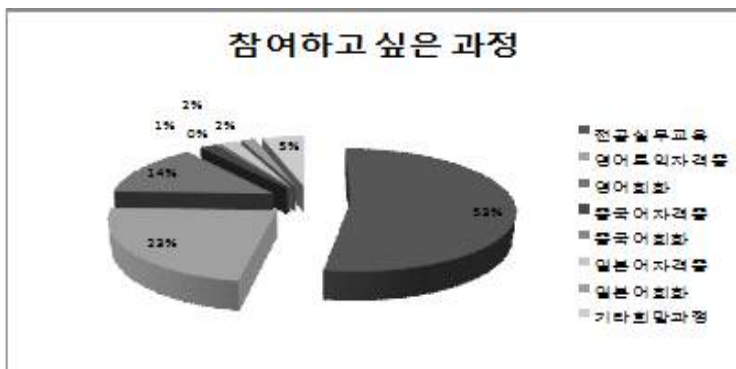
<그림3> 맞춤형 국내취업프로그램 참여의사



다음 <그림4>는 「무료로 교내에서 교육과정이 운영될 경우 참여하고 싶은 과정은?」이라는 질문에 전공과 관련된 실무 교육이 53%이고, 다음으로 토익 23%이다. 전공을 어느 정도 숙련시키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기본 자격요건인 토익 구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2013년도 정기 토익에 응시한 취업준비생은 88만 1759명이었고 평균점수는 643점이었다.¹⁸⁾영어관련 어학 자격증은 특정 직종인 디자이너, 예체능 관련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업에서 제시한 기준 점수는 최소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성향 결과를 토대로 단과대별 전공과 관련된 실무취업과정과 토익과정 위주로 운영한다.

<그림4> 참여하고 싶은 교육과정



18) 윤호(2014.04.08) 「작년 취업준비생 TOEIC평균 점수는」 MK뉴스
<http://news.mk.co.kr/newsRead.php?sc=50400005&year=2014&no=546074>
 (검색일:2014년5월8일)

5.2. 2015년 참가자 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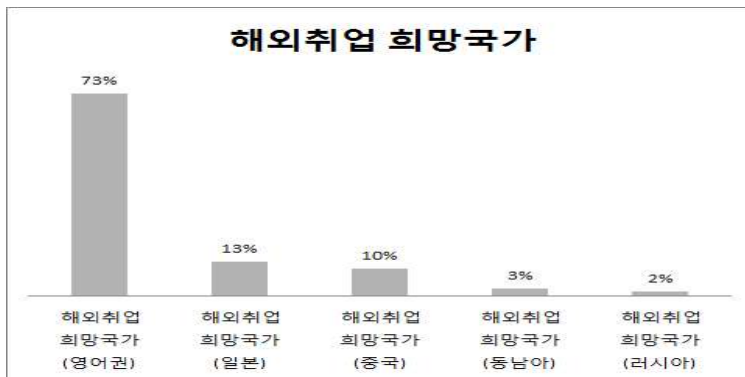
본 연구의 성향조사는 2015년도 2학기 실시하였다. 4년제 대학생이 일본에 취업하는 과정을 포함한 해외취업의 성향과 국내에 취업하는 교육과정을 2013년, 2015년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학생들의 많은 표본을 모집하기 위하여 기말고사 전 종강을 앞두고 한달 전 하였다. ‘진로 지도와 자기개발’이라는 취업교과목으로 교양선택이다. 학기마다 280여명의 학생이 수강하는 2학점 과목이다. 취업에 관한 열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개설되면 5분 만에 마감되는 인기과목이다.

취업에 관해 매주 최신정보를 전달하면서 단발성이 있는 다른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표본대상은 토목공학과 5명, 화학공학과 2명, 기계공학과 10명, 전자제어공학과 9명, 설비공학과 7명, 정보통신공학과 23명, 경영회계학과 7명, 제어계측학과 2명, 영어영문학과 7명, 화학생명공학과 12명, 신소재공학과 14명, 중국어과 12명, 전자공학과 6명, 공업디자인과 6명, 회계학과 3명, 일본어과 5명, 전기공학과 12명, 경제학과 17명, 산업경영공학과 12명, 건설환경공학과 6명, 제어공학과 3명, 공공행정학과 2명, 재료공학과 3명, 컴퓨터공학과 1명, 시각디자인과 1명 총 25개 학과로 수집된 최종 유효 표본 수는 187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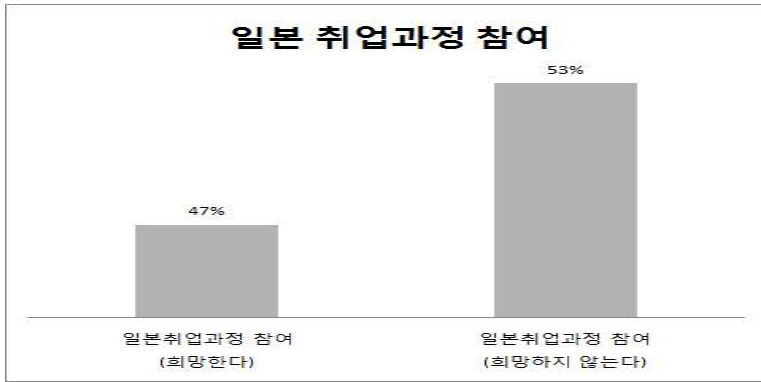
설문지의 항목 중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국가는’이라는 질문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그림5>와 같다. 영어권이 73%이고, 일본은 13%이다.

<그림5> 해외취업 희망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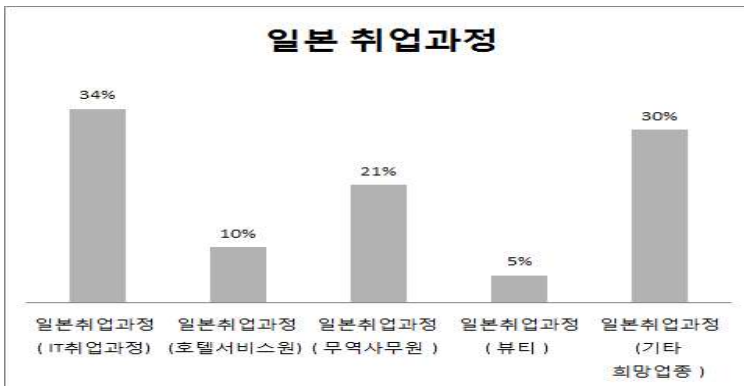
<그림6>은 ‘일본 취업과정에 참여여부’를 묻는 질문에 ‘희망한다’에 47%, ‘희망하지 않는다’에 53%이다. 참가자의 확대를 위하여 해외취업과정을 기획할 경우 영어권 취업과정과 일본취업과정 등 해외에 취업과정을 국가별로 다양하게 운영한다.

<그림6>일본취업과정 참여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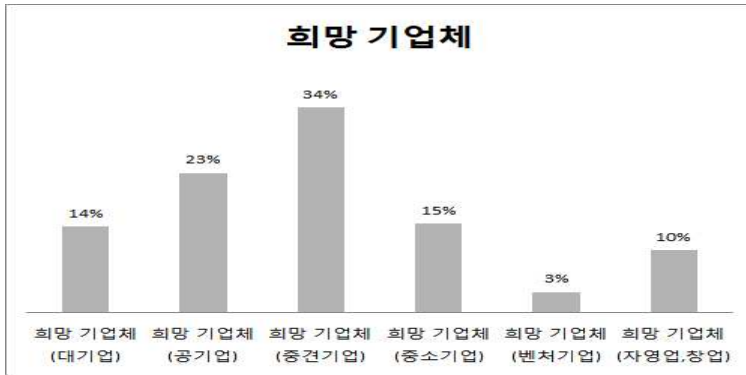
다음 <그림7>은 ‘일본취업과정을 개설하면 희망하는 프로그램은’이라는 질문에 ‘일본IT취업과정’이 34%이고, ‘기타 희망업종’이 30%이고, ‘무역사무원’이 21%이다. ‘기타 희망업종’이 30%인 것은 표본 대상이 25개 학과로 전공과 관련된 과정을 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7>일본취업과정 희망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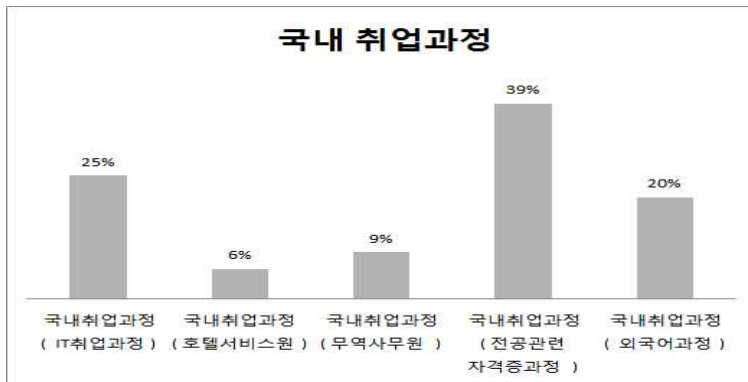
다음 <그림8>은 ‘국내취업 할 경우 희망하는 기업 유형은’이라는 질문에 ‘중견기업’이 34%이고, ‘공기업’이 23%이다. 성향 결과를 토대로 취업동아리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기획할 경우 반영하여 중견기업 취업 동아리반을 별도로 운영하여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 되도록 한다.

<그림8> 취업하고 싶은 희망 기업유형



다음 <그림9>는 ‘국내 희망하는 취업과정은’이라는 질문에 ‘전공관련 자격증 과정’이 39%이고, ‘IT취업과정’이 25%이고, ‘외국어 과정’이 20%이다. 25개 학과로 다양한 전공이 표본대상이므로 전공 관련된 자격증 과정이 39%이다. 학생들이 전공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5%인 IT취업과정은 예체능과 관련된 진로를 제외하고 전공을 불문하고 컴퓨터는 접근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림9> 희망하는 국내 취업과정



6. 나가기

본 연구는 국내 대학생의 성향에 따라 어떤 일본취업과정과 국내취업과정을 개설하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효율적인 방안을 고찰하였다.

2013년 설문조사 결과 ‘일본 취업 및 인턴쉽 과정이 개설되면 참여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희망한다’에 42%, ‘희망하지 않는다’에 58%로 나타났다. 2015년 설문조사 결과는 ‘일본 취업과정에 참여여부’를 묻는 질문에 ‘희망한다’에 47%, ‘희망하지 않는다’에 53%이다. 일본취업과정 성향을 보면 여러 조건이 다른 것을 감안하여도 4년제 대학생과 2년제 대학생의 성향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취업과정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는 취업과정을 구성할 때 일본취업과정 뿐만 아니라 영어권 취업과정도 함께 개설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참여를 확산시켜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하면 취업의 조기 정착률은 향상될 것이다.

국내취업과정은 국비지원 청년강소기업체험, 청년취업아카데미 등에 참여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직무능력 경험을 익힌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맞춤형 국내취업프로그램 운영시 참여의사는?」라는 질문에 ‘참여하겠다’가 64%이다. 2013년 2년제 대학 설문조사 결과 「무료로 교내에서 교육과정이 운영될 경우 참여하고 싶은 과정은?」이라는 질문에 전공과 관련된 실무 교육이 53%이고, 2015년 4년제 대학 설문조사 결과 ‘국내 희망하는 취업과정은’이라는 질문에 ‘전공관련 자격증과정’이 39%이다. 국내 취업과정 기획단계에서 전공과 관련되어 자신감 함양을 위하여 반영하면 취업의지 고취에 도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재학시 국내·외 취업교육과정을 다양화하여 적어도 4년제 대학은 3학년 1학기부터, 2년제 대학은 1학년 2학기 때 부터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대학생들의 욕구에 부응하면 참여률도 높아지고 취업목표도 확고하게 되어 미취업자가 감소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청년고용기획과(2015) 『2015 한권으로 통하는 청년고용정책』 고용노동부. p.163.

2. 논문 및 기타 자료

- 국립국제교육원(2015) 「2015년도 한·미[WEST] 12개월 제1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공고」 p.1.
- 고용조사분석센터(2014) 「청년 취업실태 및 의식 기획조사」 한국고용정보원, p.1.
- 교육부(2014) 「2014년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 교육부, p.14.
- 교육부(2013) 「전문대학 육성방안」 교육부, p.36.
- 교육부 홍보담당관실(2015) 「2014년 대학정보공시 보도자료」 교육부, p.11.
-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과(2012)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 교육과학기술부, p.1.
- 김필동(2007) 「일본의 IT전략과 국제적 IT협력체제의 구축에 관한 소고」
『日本文化研究』 第23輯, 韓国日本文化研究学会
- 김용성외4인(2006) 「해외취업지원사업 심층평가」 한국개발연구원
- 권경득.김택준(2011) 「청년 인적자원의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0권 제2호』 한국인사행정학회
- 대학재정지원과(2013) 「2013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교육부, p.29.
- 대전지역본부 일-학습지원센터(2014) 「한국형 일-학습 병행제 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 p.3.
- 丸毛沙代(2007) 「韓国人の日本向け就職の現況と課題-釜山地域の教育機関と教育内容を中心に」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일자리추진기획단(2014) 「2014 청년인력 해외취업 및 연수자 지원계획」 대전시, p.2.
- 정동고(2006) 「IT인력 일본 진출 사례 분석을 통한 지식서비스 교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경제무역학과 박사학위논문
- 전윤선(2010) 「일본IT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접근법 고찰」 『한국일본문화학보 제47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246.
- 전윤선(2013) 「호텔,뷰티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 고용시장의 효율적인 접근방안」 『한국일본문화학보 제56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382.
- 주영주(2015) 「대출 청년층의 학교 지원 및 전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내재적 직업가치 및 외재적 직업가치가 첫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제18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안혜라(2011) 「고학력미취업자의 미용 직업훈련을 통한 해외취업의 활성화 방안-일본해외취업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뷰티디자인 전공 석사학위논문
- 최병기(2010) 「해외취업사업의 미래전략 방법론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산업공학과 박사학위논문
- 취업기획팀(2013) 「2013년 K-MOVE 스쿨 세부 추진계획」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국, p.9.
- 한국산업인력공단(2014) 「2014도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지원사업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 p.2.
- 한국산업인력공단(2014) 「2014년도 취업으로 청년층 해외취업지원사업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 p.1
- 한국산업인력공단(2013) 「13년도 상시 해외취업연수 운영기관 재모집공고(안)」 한국산업인력공단, pp.5-6.
- 한국교육개발원 홍보기획실(2013) 「201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 조사결과 발표」 한국교육개발원, p.4.
- 천영민(2010) 「대출자 취업과정 분석」 『이슈 분석 2』 한국고용정보원, p.26.
- 취업기획팀(2013) 「2013년 K-MOVE 스쿨 세부 추진계획」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국, p.9.

취업지원과(2013) 「2014년 대학취업지원사업 설명회 자료」 고용노동부, p.17.
윤호(2014.04.08) 「작년 취업준비생 TOEIC평균 점수는」 MK뉴스
http://www.ncs.go.kr/ncs/page.do?sk=P1A1_PG01_001(검색일: 2016.6.5.)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03_0014127359&cID=10807&pID=10800(검색일: 2016.6.6.)

논문 투고 일자 : 2016. 09. 05.
논문 심사 일자 : 2016. 11. 02.
게재 확정 일자 : 2016. 11. 03.

<要旨>

大学生の就職サポートのプログラムの参加者の日本へ就職するコースと国内就職コースの
性向を研究
-大田の大学生を中心に-

全允善

韓国雇用情報院(2014)によると、2013年の就職者数は前年比5万人減の379万3千人と推定される。しかし、海外での就職者は1,637人で、2012年に比べ313人(23.6%)増加した。就職率は低下したが海外就職者が増加したということから、若者の海外就職に対する認知度が上が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分かる。就職難・失業問題を解消するために、この危機的状況を政府、学校、産業界が連携して打開すべきである。大学生を対象とした就職プログラムを運営する際には、学生たちの性向を考慮してアプローチする必要がある。4年制大学は3年生1学期から、短期大学は1年生2学期から進路探索を開始することがのぞましい。

A study on aspects of Korea and Japan Employment process through Job support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in Dae Jeon.

Jun. Yun-Sun

According to Korean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employment has decreased by 50 thousand since 2013, amounting to about 3,793,000 people employed in 2014. However, there has been a 23.6% increase, by about 313 people, in international employment since 2012. This points to an increase in awareness about international employment amongst young Koreans. To solve this unemployment crisis, the government, schools, and the work industry need to work closely together to find a solution. One solution that was under consideration was analysing the process that the government uses to assist with employment locally and internationally.